



오인회 소식

2015. 2월(제41호)

발행인의 말

‘나’를 사용하기, 動中靜

"내"가 되어 무슨 일을 하다가 그것이 끝나면 그 즉시 '나 없음'으로 돌아오라. 나 없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움직임 없는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어딘가로 움직인다는 말이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나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마음은 관성에 의해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 그때 "이것이 진정 '나'인가?" 라고 자문해보라. 그러면 즉각 또는 천천히 주의 제로 상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과 움직이지는 마음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면, 이제 일을 할 때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는다"는 것의 의미가 와 닿게 된다.



성공체험이란 일종의 쾌락체험이다. 그것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며 한껏 긴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룰 때 그동안 쌓였던 압박과 긴장이 풀려 가는 느낌인 것이다.

알렉산더는 끊임없는 목표 세움과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긴장이 쌓이고 해소되며 쾌감을 얻었지만, 점차 그 반복이 지루해질 때, 그리고 인도정복으로 더 이상 세울 목표가 없다고 느낄 때 디오게네스를 만났다. 알렉산더는 항상 미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압박을 스스로 만들었지만, 디오게네스는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한

햇볕을 더 즐겨 했다. 굳이 미래의 목표를 세워 그를 위한 압력을 높였다가 그 목표를 이룰 때 압력이 풀리는 과정을 통해 긴장해소의 기쁨을 느낄 요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일 뿐이다. 마음이 강한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강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푸는 것이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쾌락에 중독된 마음과 다르지 다. 그저 이 순간 아무 내적 요구 없이 따스함을 즐기는 것이 더 낫다고 디오게네스는 말하는 것이다. 즐거움이 다가오면 즐길 뿐, 그것을 쫓아가지 는다.

알렉산더의 마음을 쓰면서 동시에 디오게네스로 존재하기! 이것이 바로 움직이지만 움직이지는다는 말의 의미이다.

越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12.29 쎬이 10만원 / 01.09 류창형 3만원 / 01.12 우현 2만원 / 01.16 아람드리 10만원 / 1.23 무연 10만원 / 1.30 허유 220만원

청년 백일학교 후원방식

청년백일학교는 2년간 여러분의 후원 (1년에 3천, 총 6천만원) 을 받은후 자립하려 합니다.

- 2년 운영후원 : 300만원(일시불)
- 2년 일시후원 : 120만원(일시불)
- 2년 24회 후원 : 120만원(1달 5만원)
- 1년 일시후원 : 60만원(일시불)
- 1년 12회 후원 : 60만원(1달 5만원)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문의 : 02-747-2261

청년백일학교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목표액 6천만원 중 현재 후원액 1710만원)
 천강 300만원, 지원 300만원, 현 300만원
 우현 300만원, 고을 300만원,
 화동 120만원
 문수홍 60만원
 도빈 10만원
 바람 10만원 (11.17, 12.17,1.16),디테 10만원 (11.20, 12.22)

5차 '나와의 소통'정기모임이 3월 29일에 있습니다.

'나와의 소통' 정기모임은 강좌 이후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강좌에서 진행된 내용들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를 서로 이야기해 보는 자리입니다. '나와의 소통' 강좌가 '나'를 이해하는 기 과정이었다면 '나와의 소통' 정기모임은 '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심화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마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서로 모여서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내 걱정을 해소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공부에 대한 나의 틀을 알아차리고 이를 통하여 공부 방향도 잡아가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의 소통' 정기모임을 아무 부담없이 하루 재밌게 떠들고 놀다가는, 그래서 떠들고 놀다보니 삶이 편안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모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자 합니다.

“우현선생님의 '나와의 소통'은 나에게 아주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그저 자랄 뿐입니다. 바람은 그저 불기만 할 뿐이고 물은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저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날씨'였습니다.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우중충한 날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좋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안좋을 때도 있습니다. (중략) 이 모든 것이 날씨였습니다. 이 날씨를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안의 '공허함', '두려움'이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세상 모든 것'인 날씨를 빼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남을까?”

- 14차 '나와의 소통' 참석자 김00님(25세)의 후기

15차 계절수업이 3월 7일과 8일 양일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감지 인텐시브 기 에서는 <경험>을 얻은 사람이 그 경험을 모두와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고받음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즉, 각자 터득된 감지를 오분, 이 분석 발표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 중, “나는 저 부분이 분명하지 있는데 저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발표가 끝난 뒤 발표자와 1:1로 만나거나 그룹으로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감지라고 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한 감지, 식물과 동물에 대한 감지, 사람에 대한 감지, 움직임에 대한 감지 등과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도 감지로 느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존재감, 관찰자의 느낌, 보이지 는 주체의 느낌 등 “내가 보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감지의 세계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이 감지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발표하고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과 서로 만나 경험을 나누고 연습하고 토론하는 것이 이번 <감지 인텐시브> 기 과정의 주 활동이 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수업 발표를 준비하는 작업이 요합니다. 참여 신청을 해주신 분들과 함양수련원팀이 서로 상의해서 <감지 인텐시브>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하여 발표내용이 더욱 알차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연유로 다른 때보다 일찍 참여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경험이라도 그 경험을 하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니, 그 사람을 위해 발표한다는 것이 목적이니 '나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님을 생각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 747-2261)

30차 '깨어있기 심화과정' 이 3월 20일 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궁금해 하는 것'조차 모두 하나의 '느낌'이다 도건 인터뷰(2)

도건道健님은 성균관대 생명공학부를 졸업한 학생으로 중학생 때부터 근본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4살이 되던 해에 라마나 마하리쉬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본 후 '나라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었고, 때마침 성지님의 도움으로 미내사의 깨어있기 기 과정 프로그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 과정 이후에 '나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찾아왔고, 이를 더 깊게 탐구하기 위해서 백일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있기 기 과정을 공부하면서 변화되는 과정과 심화 과정을 통해서 찾아온 통찰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

편: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도: 아까 '물소리가 더 이상 물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감지를 통해 보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책들도 더 이상 책이 아니고, 지금 보이는 나의 팔조차도 더 이상 나의 팔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세상 모든 것이 느낌으로 환원되어버리니까요. 그때부터는 생각과 이름으로 무언가를 정의할 수 없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감지가 잘 와닿게 된 이후에는 생각도 감지라는 것을 알아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컵을 들어 올릴 때, 화장실을 이용할 때,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감지로 관찰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뭔가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워져서 재미있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면 무조건 된다는 자신감도 생기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편: 그럼 생각도 감지라는 것을 며칠 만에 알게 된 건가요?

도: 음... 8월 6일부터 지도를 받기 시작해서 8월 8일 감지를 알게 되었고 8월 9일 '물소리가 물소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생각이 감지라는 것은 12일에 어렵듯이 알게 되었어요. 사실, 감지를 알고나서부터 나머지는 쉽게 알게 되더라고요. 감지를 알아채는 것이 저에는 가장 큰 장벽이었죠. 이런 경험을 통해 봤을 때, 감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감지가 더욱 명확해지고 섬세해질수록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작용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니까요.

편: 그럼 그 기간 동안 특히 어려웠던 점이나 막혔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 '감지'였죠. 원래

무의식적으로만 사용하던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채려다 보니 많이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혼자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고요. 분명한 건 이런 것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이 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경험도 많이 요해 보이고요. 이 연습을 해보니까 '체험적으로 경험되지 으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감지에서 막힐 텐데, 결국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시간을 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야 한다는 거였죠.

말하자마자 '감지'를 알아채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을 듯해요. 그래서 '경계를 짓고, 형태와 질감을 느끼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결과나 통찰이 나오려면, 거기에 요한 최소한의 연습시간은 있다고 보는데,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저에게는 많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때는 연습을 하면서도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때는 '감지'를 알아채려면 2~3년은 걸리지 을까? 하는 생각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옛날 깨달은 고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제자가 스승의 말을 알아채기 위해 수년 동안 고심하는 것과 동일시도 많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불안과 걱정도 모두 마음 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죠. 그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경계를 짓고 형태와 질감을 느끼는 것에 더욱 집중했어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했던 것이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편: 이 방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연습하고 계속 실천한 것이네요?

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어렵겠죠...

편: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나요?

도: 밥 먹고 하고, 시간 나면 하고, 일할 때 하고, 잠자기 직전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연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더라고요. 설거지할 때도 설거지하는 그릇을 보고 형태와 질감을 느낄 수 있고요, 굳이 조용한 곳에 가서 명상하듯이 할 요는 없다고 봐요.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는, 쓰레기봉투를 보고 연습을 해도 되고요. 청소할 때는 빗자루나 청소기의 이름을 떼고 형태와 질감을 느끼면 되니까요.

편: 깨어있기 기 과정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도: 일단, 지금까지 경험한 것의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배움이었어요. 제가 원래는 12일 동안만 공부하고 집에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만약 그렇게 돌아왔다면 저는 아마 절대로 여기서 인터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깨어있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아직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니, 전체적인 체계와 구조를 알 요가 있다고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 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나가서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미내사에서 쓰던 용어들을 몰라서 선생님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가 많이 힘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일상생활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죠. 그렇게 깨어있기를 하면서, 감각이라든지, 감지, 생각, 주의제로, 어떻게 하면 무의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다양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를 명확해진 감지를 더욱 명확하게, 이론적으로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같고요. 그리고 이미 경험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쌓인 것들이 있으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알아듣기가 훨씬 쉬웠어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의 의도를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었고,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마음의 전체적인 틀을 깨어있기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알게 되니까 구별되는 ‘나’라는 것과 생각과 감정 모두 느낌이라는 것을 더욱 쉽게 알아챌 수 있었어요. 깨어있기 수업을 듣기 전에 파편적이고 어렵스럽게 알아채 젤던 것들이 깨어있기 기 과정을 들으면서 그것들 모두 하나로 꿰어지는 성과도 있었죠. 또한, 감지, 감각, 주의제로 모두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실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죠.

편: 감지를 보는 것이 쉽게 잘 되었어요?

도: 예, 미리 했던 경험과 이론적인 것이 결합하니 그때부터는 쉽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를 깨어있기 전 교육을 받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었어요. 선생님이 쓰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저에게는 없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죠. 그러다 깨어있기를 들으면서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니까, 알아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때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말이죠.

편: 깨어있기 과정에서는 체험이라든지 크게 와 닿은 것이 있었나요?

도: 저는 ‘나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와 닿았어요. 깨어있기 마지막 날까지 했던 과제가 ‘눈은 모든 것을 보지만, 눈은 자신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였거든요.

편: 그 과제는 스스로 설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도: 여러 과제들을 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막혔었어요. 선생님께서 올라오는 느낌을 역추적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그대로 하긴 했는데 풀리지가 않던 거죠. 그러다 깨어있기 마지막 날에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따로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힌트를요. 이것이 ‘백척간두 진일보’이니 연습 잘 해보라고 하시면서요. 이 주제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편: 그 문제는 깨어있기에서 해결된 것은 아니네요?

도: 예, 해결은 안됐죠.

편: 그럼 그 문제를 일상에 들고 간 거네요. 그때 깨어있기를 수강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어요?

도: 5명 정도 있었어요.

편: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깊게 공부를 못했을 것이고….

도: 그렇게는 못했죠.

편: 약간의 특별지도를 받은 셈이네요? 그전에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도: 그렇죠. 그것이 엄청 컸죠. 일반 사람들은 깨어있기에 와서 감지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감지가 명확해지니깐, 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린 거죠.

편: 그럼 이 최종적인 의문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해결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도: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위에서 보듯이 핵심에는 다가가고 있지만, 항상 걸려 넘어지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남아있었죠.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핵심적인 것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것들 전부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덜했어. 그래서 일단 깨어있기는 이 과제를 남기고 끝이 난 거죠.

편: 미리 공부했던 것이 깨어있기를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도: 저한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됐죠. 그래서 만약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미리 공부하러 가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사전에 체험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깨어있기 기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깨어있기 기 과정을 보면, 감지를 알아채게 하려고 선생님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기 과정의 의도는 감지를 알아채 후 그것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작용을 들여다보는 실험을 하라는 것이 목표인데, 미리 공부하면

조금이나마 감지에 관련된 경험이 쌓일 거예요, 그럼 ‘깨어있기’를 들을 때 이해하기도 아주 수월해지고 이론적으로도 그 모든 경험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선생님은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주시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조금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심화된 것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니까 서로 간에 동기부여도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학구적이고 열정적으로 될 수 있었거든요. 시 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공부한 것이, 저뿐만 아니라 깨어있기 수업 전체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대승기신론(24)

월인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모든 현상이 여래(如來)라는 본질적인 측면을 안고 있기에 여래장(如來藏)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의 유가론이나 유식학에서는 아라야식(阿羅耶識)을 생멸하는 현상으로 보았기에 “번뇌는 번뇌이고, 보리는 보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라야식 즉 저장식의 업이나 무의식적으로 쌓아놓은 모든 저장물을 생멸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거기에는 본질적인 측면이 없기에 결국 생멸과 본질이 둘로 나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에서는 모든 현상 속에 본질이 있고, 현상을 떠나서는 본질을 발견할 수 없기에 아라야식이 곧 여래장이라고 했습니다.

파도는 바람에 의해 물결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또한 바다인 것처럼 현상이 곧 본질입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지의 차원에만 머물러 파도만 경험해본 사람은 그 둘이 같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바다와 파도는 다른 것으로 구분합니다. 원효가 생멸심(生滅心)과 불생멸심(不生滅心)이 다르지 다고 말한 것은 바로 파도와 바다에 차이점은 있지만 둘이 다르지는 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만이 아라야식은 곧 여래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과 불각(不覺), 즉 깨침과 깨치지 못함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신이 뭔가 경험하고 알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강의를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본질을 경험했어”라는 생각과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함정임을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경험이 일어나기까지 애써야 할 요는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일어난 이후에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승기신론 원문을 보겠습니다.

云何爲二? 一者, 瞢 二者, 不覺義. (운하위이? 일자, 각의, 이자, 불각의)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각()의 뜻이고, 둘째는 불각(不覺)의 뜻이다

각(), 불각(不覺)이라고 하지 고 각의 뜻(瞢 과 불각의 뜻(不覺義)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言 瞢蛤 謂心體離念. 離念相者, 等虛空界無所不?, 法界一相卽是如來平等法身. 依此法身設名本覺. (소언각의자 위심체리념. 리념상자, 등허공계무소불편, 법계일상즉시여래평등법신, 의차법신설명본각.)

각의(瞢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가 생각을 떠난 것을 말함이니, 생각을 떠난 상(相)이란 허공계와 같아서 두루 하지 은 바가 없어, 법계가 모두 하나의 상(相)이며, 바로 여래의 평등한 법신이니, 이 법신에 의지하여 본각(本覺)이라고 이름한 것을 말한다.

각의(𣎵 , 즉 깨달음의 뜻은 마음의 본체가 생각을 떠나있음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각()이라는 것은~”이라고 하지 않고 “각의(𣎵 라는 것은~”이라고 하여 말이 엄밀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념(離念) 또는 리념자(離念者)라고 하지 않고 리념상자(離念相者)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떠났다는 것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을 떠난 상(相)이라는 것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생각을 떠난 것도 하나의 상(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경험하고 생각을 떠나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생각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 “나는 생각을 떠났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념상자(離念相者)”입니다. 생각을 떠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상(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떠난 상(相)은 허공계와 같아서 두루두루 편만하고 온 우주 전체가 하나입니다. 여기서 법계(法界)는 진리의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의 세계도 포함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상을 통해서 진리가 발견되므로 현상이 곧 법(法)이기 때문입니다. 법계일상(法界一相)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허공계와 같은 불이(不二)의 세계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여전히 하나의 상(相)입니다. 본각(本覺)이란 전 우주, 전존재계, 모든 현상계가 결코 나눌 수 없는 유기적인 하나라는 의미의 법계일상(法界一相), 다른 말로 법신(法身)에 의존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가 분리되지 않은 불이(不二)의 세계로 체험되고 보여 질 때 드디어 본각(本覺)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何以故? 本覺義者, 對始 𣎵咸 以始 𣎵비峇農隧. 始 𣎵蛤, 依本覺故而有不覺, 依不覺故設有始 .
(하이고? 본각의자, 대시각의설, 이시각자즉동본각. 시각의자, 의본각고이유불각, 의불각고설유시각.)

어째서인가? 본각(本覺)의 뜻이란 시각(始)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니 시각이란 바로 본각과 같기 때문이며, 시각의 뜻은 본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언가 불각(不覺)이 있으며, 불각(不覺)에 의하므로 시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본각도 일종의 상(相)입니다. 본각은 시각에 의존하고, 시각은 불각에 의존하고, 불각은 본각에 의존하고... 이렇게 돌고 도는 이유는 모두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본각도 시각도 불각도 없다고 합니다.

본각은 근본적인 깨침이고, 시각은 깨침이 조금 시작된 것입니다. 물에 뜨는 것으로 비유해보자면 물속에서 헤메다가 드디어 물에 뜰 줄 알게 된 것이 시각이고, 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마음대로 떠다니는 것이 본각입니다.

원문에서 ‘본각의 뜻은 시각의 뜻에 대응하여 말한 것’이라는 의미는 본각을 정의할 때 ‘시각과는 조금 다른 이러한 것이 본각이다.’라고 시각에 의존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없으면 본각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시각과 본각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나눠놓은 것입니다. ‘시각과 본각이 같다(始 𣎵비峇農隧)’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의미로 시각에는 본각과 같은 측면이 있기에 각()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각이 완벽한 각()이라면 이에 비해 시각은 뭔가 부족한 불각(不覺)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기에 본각과 시각으로 나눠놓은 것이지요. 즉 시각에는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어 불각(不覺)의 의미와 말에 의존하므로 시각이라 말한다고 했습니다. 시각(始)과 본각(本覺)을 견성(見性)과 완전한 대각(大)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견성은 이제 겨우 본성을 알아챈 것이고 대각은 완전하게 깨친 것입니다. 견성 안에는 대각과 완전히 같지 않은 덜 깨달아진 부분이 있으므로 견성 안에는 불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대각과 견성이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대각은 본성자체가 된 것이고, 견성이라는 것은 본성을 본 것이므로 성(性)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깨침이 시작된 시각(始), 깨침의 본질적인 부분이 드러난 본각(本覺), 깨치지 못한 불각(不覺)이 있습니다. 시각은 본각에 비하면 불각의 측면이 있으므로 불각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존한다는 것은 불각이란 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시각은 본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의 맛을 봤다는 의미에서 시각은 본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은 본각이기도 하고 본각이 아니기도 합니다. 또 시각은 본각에 비하면 불각이지만 각()이 있기는 하기에 완벽한 불각은 아니므로 불각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제 불각에 대해 살펴보면, 불각이 있는 것은 본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각과 불각을 나눈 것이므로 불각은 본각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불각이 본각은 아니지요. 따라서 불각은 본각이 아니지만, 본각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본각과 불각도 서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불각(不覺), 시각(始), 본각(本覺)은 모두 본질적인 자성(自性)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원자, 전자, 양성자가 있다고 여겼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그것들은 모두 에 지 끈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자, 전자, 양성자가 따로 각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들에는 자성(自性)이 없습니다. 자성(自性)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스스로의 성질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각, 본각, 불각에는 자성(自性)이 없어 시각은 본각 때문에 있는 것이고, 본각이 있기에 불각이 있고, 불각이 있기 때문에 본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있기에 깨달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깨달지 못한 사람이 없으면 깨달은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는 모두 깨달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깨달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깨달지 못함이 있습니다. 깨달음과 깨달지 못함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철저히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개념 속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개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개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깨달음, 깨달지 못함, 견성, 본각, 이런 것들이 있다고 여기는 마음은 개념의 세계에 빠져 있는 마음입니다. 각()도 불각(不覺)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념과 상관없는 세계로 갔을 때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분별의 세계에서 개념에 빠져있을 때는 각()과 불각(不覺)이 있습니다.

각의(썩 라는 것은 나와 대상의 분열이 허구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작용을 한다는 것은 나와 대상으로 분열된 상태 속에 있음을 말하며, 모든 생각 또한 이러한 분열을 기반으로 일어납니다. 각의(썩 는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불이(不二)의 법계일상(法界一相)이고 이것이 본각(本覺)의 의미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분열 속에 있을 때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있고 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당연히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므로 깨달음과 깨달지 못함이 있고 부처와 중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나눔과 분별의 세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감각상태(깨어있기 용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상태는 본질의 그림자죠. 감각상태로 들어가면 '나'도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부처도 중생도 없는 것이죠. 마음이 나뉘지지는 텅 빈 상태인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분별의 세계를 떠나면 거기에는 깨달음도, 깨달지 못함도, 부처도, 중생도, 나도, 도 없습니다. 깨달는다는 것은, 부처와 중생이 있는 분별의 세계에서 노력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의 나눔이 없는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처와 중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없다고 해야 할까요?

본각(本覺)은 심체(心體)가 불각상(不覺相, 깨달지 못함이라는 相)을 떠난 것입니다. 불각(不覺)을 떠난 것이 아니라 불각상(不覺相)을 떠난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아직 안됐어, 나는 아직 모르겠어.”라는 마음이 불각상(不覺相)입니다. “나는 미진해.”라는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마음에는 '내'가 있고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미진함도 미진하지 음도 없는데 그러한 상(相)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서 자꾸 미진함이 올라오는데 “이 미진한 마음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그럼 잊어버리면 되겠네.” 또는 “아! 이런 게 없는 거구나.”한다면 '없다는 상(相)'을 또 만들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깨달지 음도 없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할 요 없네.”하고 있다면 깨달음도 깨달지 음도 없다는 상(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상(相)을 떠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을 파악하면 상(相)에 빠지지 게 되는 것이지 또 다른 상을 붙잡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시각(始)에 대한 원효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疏：〈次釋始，於中有二。先顯亦對本覺不覺起義。後對不覺釋始 썩 此中大義，欲明始 썩 槩船喆。不覺待於本覺。本覺待於始。既互相待，則無自性。無自性者，則非有。非有 썩，由互相待。相待而成，則非無覺。非無覺故，說名爲 썩。非有自性名爲 썩。略明二 썩 癩〉

소：〈차석시각, 어중유이. 선현역대본각불각기의. 후대불각석시각의. 차중대의, 육명시각대어불각. 불각대어본각. 본각대어시각. 기호상대, 칙무자성, 무자성자, 칙비유각, 비유각자, 유효상대, 상대이성, 칙비무각, 비무각고, 설명위각, 비유자성명위각야. 락명이각경재어전.〉

다음은 시각을 풀이하였으니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는 또한 본각을 상대하여 불각이 일어나는 뜻을 나타냈고, 뒤에서는 불각에 대하여 시각의 뜻을 풀이하였다. 이 중의 대의는 시각이 불각을 기다리고 불각이 본각을 기다리며 본각이 시각을 기다리는 것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미 서로 기다리는 것이라면 자성이 없는 것이다. 자성이 없다면 각이 있지 을 것이요, 각이 있지 은 것은 서로 상대하기 때문이다. 상대하여 이루어진다면 각이 없지 을 것이요, 각이 없지 기 때문에 각이라 말하는 것이지, 자성이 있어서(즉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각이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개의 각을 대략 밝힘을 앞에서 마친다.

대승기신론 원문에서 시각을 풀이하면서 처음에는 본각이 있으므로 불각이 일어남을 말했습니다. 본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놓았기에 이에 대비하여 불각도 말할 수 있으므로 본각이 없으면 불각도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불각에 대하여 시각의 뜻을 풀이하였습니다. 시각과 본각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시각이란 말 안에는 본각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각은 불각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 시각 안에는 불각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시각과 본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과 본각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본각은 또한 시각에 의존합니다.

또한 본각은 불각에 의존합니다.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깨닫지 못함이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이다. 그런데 부처가 아니라는 착각 속에 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본각은 불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부처라면 본각 상태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새롭게 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불각은 본각에 의존하고 본각은 시각에 의존하고 시각은 불각에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각자는 본성이 없다(無自性)는 것이고, 각()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자성(無自性)이라는 말은 비유각(非有,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 아님)이고 또한 비무각(비무각非無覺,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님)입니다. 만약에 깨달음이 없다면 무각(無覺)이라고 하면 되는데 비유각(非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무자성(無自性), 즉 깨달음의 본질이 없다는 의미는 “깨달음이 무엇이나?”고 물어봤을 때 “깨달음은 이리이러한 것이다.”라고 말할만한 본질적인 특성이 없다는 뜻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非有). 왜일까요? 착각만 벗어나면 되기에 그렇습니다.

갈대처럼 서로가 서로에 의존하여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듯이 시각, 불각이나 본각이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기다려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相待而成) 즉 시각과 불각과 본각이 서로 의존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한 비무각(非無覺)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각, 시각, 불각이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지만 깨달음이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각()이라고 말하는 것이 특별히 어떤 자성(自性)이 있어서 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해도 본성은 없으므로 본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유각(非有) 즉,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개념 속에 빠진 것을 깨트리려고 “각()이라는 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죠. 비무각(非無覺) 즉 깨달음은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은 “우린 이미 다 깨달아 있으니 깨달음을 위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깨달음이 없는 것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애쓰지 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여 두 종류의 사람을 다 좌절시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써도 안 되고 애쓰지 아도 안 되겠죠? 애쓰고 애쓰지 음, 있음과 없음도 모두 떠나야 합니다. 이처럼 본각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닌데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하는 상(相)을 만들어 놓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불각(不覺)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후에 “나는 깨달았어.”하고 있다면 유각(有)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깨달았어. 경험했어. 체험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이 시대부터 이런 주의를 줍니다. 있는 것이 아닌데 있다고 느끼고, 경험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다시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잘 보라는 것이죠.

미혹한 무지에 빠져 있다가 깨닫게 되는 것을 시각(始), 견성(見性)이라고 합니다. 본성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시각에만 있고 본각이나 대각에는 없어야 합니다. 미혹을 벗어나서 본성을 보는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이 깨달음이므로 이 견성의 순간에만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본각에는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깨달은 본각이다라는 입장에서는 시각에 깨달음이 없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깨달아 있는 상태이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로 올라가는 시각(始)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 말들이 말장난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각도 본각도 불각도 다 개념 속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며 뭔가 나아졌다고 여겨지는 도중에 “나는 이제 나아졌어, 경험했어, 체험했어.”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또다시 개념 속에 빠지고 있음을 알아채야 합니다.

불각의(不覺義)라는 것은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경험했어.”라는 생각에 에 지가 투입되며 사실감이 느껴지는 마음의 작용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각, 불각, 현상, 대각 같은 용어와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